

HALO HALO

Nov.



- 수아 House

- Sari-Sari Open

- 은진, 가형 House

- 새로운 강아지 Chubby

- 민수, 민우 House

- 귀요미 손자 MJ와 3박4일

Home stay

News

1st

Week

- Memorial Day

- LNHS댄스 수행평가 감상

- Champorado Feeding

- Day Care 활동 회의

- 중간격려 준비

2nd

Week

3rd

Week

- 중간 격려

- Goto Feeding

- Frozen2 감상 & 노트북 수리

- Zone Tour

- 마카로니 soup Feeding

- San Fernando Dance

- Competition

- Brgy Festival event 준비

4th

Week

Closing

11월을 한 단어로...

Home Stay News



Liza(수아)House

--‘Sari - Sari’ Open!!!--

Home stay News



Liza House가 1년 전에 닫았던 ‘Sari-Sari’를 다시 열었습니다!!!

필리핀에는 편의점도 있지만 ‘Sari-Sari’라는 구멍가게 같은 상점이 많이 있어요. 나가 시티의 숙소 근처에도 ‘Sari-Sari’가 4곳이나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생필품이나 과자 및 간단한 식재료도 구매할 수 있어요!

특히, 편의점이 없는 루피에서는 팀원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Sari-Sari’를 이용한다는 사실!!

앞으로 더 자주 수아집을 찾게 될 것 같죠?
당연히 ‘Sari-Sari’ 때문은 아닙니다.

Angel & Chloe(은진, 가형)House

--새로운 강아지 Chubby--

Home stay News



Angel & Chloe House 에 Chubby 라는 귀여운 강아지가 새로운 식구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팀이 Home stay 를 하는 중인 , Lupi 지역에서는 강아지부터 칠면조까지!!! 다양한 가축을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아침은 핸드폰 알람이 아니라 닭 울음소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Lupi에서 돼지나 닭과 같은 가축들은 주로 가정의 수입원 중 하나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애완견으로 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Chubby는 끝까지 Lupi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랐으면 좋겠네요!!

Patrick & Sam(민수, 민우)House

--귀요미 손자 MJ와 3박 4일--

Home stay News



Patrick & Sam House에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MJ’ 이고 집에서 귀여움과 천진난만 함을 담당합니다.

MJ는 Patrick & Sam House 어머니의 둘째 아들의 아들, 즉 어머니의 손자입니다. 나이는 3살 정도로 추정되고 귀여운 미소가 매력이죠.

MJ와 함께 보낸 날은 3박 4일 밖에 되진 않지만 헤어짐이 아쉬웠던 마음에서 정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2월 루피 축제 기간에 다시 루피로 내려온다고 하니, MJ때문에 Lupi Festival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First Week



Nov 1st. Memorial Day

--가족이 모이는 날--

First week



한국에는 주로 추석과 설날에 성묘를 지내며 산소를 가거나 고향을 방문하죠? 필리핀에서는 11월 1일에 모든 가족들이 각 묘비에서 하루밤을 보냅니다. 마치 한국의 명절처럼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을 실시간 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 나가 숙소 근처에 Memorial Park(공동묘지)가 있어서 11월 1일에 공원을 방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공동묘지이긴 하지만 가족이 모이는 기념일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공원 안에 무대를 설치하고 Halloween Event를 진행하는 모습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LNHS DanceCompetition

--Lupi 최고의 춤꾼은??--

First week



Lupi 마을에는 Lupi National High School (LNHS) 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End poverty 캠페인을 진행할 때 참가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하죠. End poverty 캠페인을 계기로 가까워져서 고등학교 댄스 수행평가를 보러오라는 초대를 받았답니다!! 작은 교실에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넓은 농구장에서 의상도 각 팀마다 맞춰입고 진행되었습니다. 참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서 춤추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수행평가 참여를 계기로 Lupi 마을에 사는 학생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Champorado Feeding

--첫 Feeding은?--

First week



작년에 필리핀으로 파견된 기수가 DayCare Center에 있던 부엌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SanFernando 시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Feeding예산이 화폐가 아닌 음식으로 제공되어 사용가능한 냉장고와 보관 장소가 없는 Lupi 에서는 음식을 받지 않기로 했죠. 따라서 데이케어에서는 그동안 Feeding을 진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CamSur YMCA 와 함께 가능한 수요일마다 데이케어에서 Feeding을 진행했습니다. 첫 주의 음식은 Champorado였습니다. Champorado는 죽에 카카오 가루를 섞은 음식입니다. 한 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과연 다음 음식은 무엇이 될까요??

Second Week



DayCare Center 활동준비

--도움이 되고 싶어--

Second week



Lupi에 와서 주요 활동은 Home stay와 DayCare Center아이들의 학습 보조였습니다. 10월에 처음 오고 11월 둘째주까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 팀이 DayCare Center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팀이 수업을 직접 진행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항상 우리와 놀고 싶어해서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두 분과 회의를 통해서 우리 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회의 이후 우리 팀은 DayCare Center에서 어떤 활동을 할 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두 분의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놀아주는 것만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그 이후 더 신나게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중간격려 준비 --다시 뒤돌아 보기--

Second week



우리 할로할로팀의 중간 격려는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우리 팀에게 역시 중간격려는 긴장되는 순간이어서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피피티와 영상 제작에 일주일을 통으로 써버렸습니다.

국내훈련 기간동안 시흥YMCA에서 저희 팀을 담당해주셨던 김형석 간사님께서 중간격려보다 일찍 오셔서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격려를 위한 발표자료와 영상 대한 피드백, 루피 생활에 대한 의견교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이제, 중간격려 준비를 했다면 중간격려가 시작되어야겠죠??

Third Week



중간격려

--활동의 새로운 자극점--

Third week



드디어 활동의 절반, 그리고 중간격려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는 형석 간사님과 지윤 팀장님, 필리핀 전국연맹 총장님이 와주셨습니다. 모두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중간격려에서는 그 동안의 우리 팀의 활동과 생활에 대해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과 생활적인 면에서 우리 팀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아참! Camarine Sur의 멋진 웨이크보드장에서 했던 외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GOTO Feeding

--닭죽은 맛있어!!--

Third week



셋째 주의 Feeding 음식은 ‘Goto’였습니다. ‘Goto’는 한국의 닭죽과 유사한 음식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팀의 코디네이터와 요리사를 담당하는 Miguel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무료 Feeding은 각 지방의 DayCare Center나 병원에서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자주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an Fernando 시에서 이미 아이들에게 칫솔과 치약을 제공해주고 양치교육을 시행해서 Feeding활동이 끝나고 아이들과 양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트북 수리 & Frozen2

--이것 모두 일상--

Third week



출국 직전, 필리핀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트북 한 대가 고장났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필리핀에 와서 또!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 사실 굉장히 빈번했던 일이고 매번 복구시켰지만, 결국...이번에는 수리를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고치는 동안 팀원 다섯명과 코디네이터 Miguel이 함께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나 2명, 3명씩 영화보는 일은 있었지만 다섯명이 같이 영화 감상을 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영화감상처럼 노트북이 고장나는 것은 이미 우리 팀에게 일상인 것 같습니다.

Forth Week



ZONE TOUR

--다시, 새로운 LUPI--

Forth week



중간격려 이후 우리 팀은 Lupi의 곳곳을 둘러다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필리핀의 Barangay는 여러 개의 Zone으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Lupi는 Zone1부터 Zone7까지 있습니다. 우리 팀이 주로 거주하고 활동했던 지역은 Zone2,3 정도 였습니다. 가끔 산책삼아 Zone7까지 걸어 보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Zone1부터 Zone7까지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빨간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갈 때는 안 보이던 풍경들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Zone6의 교회에서 한국인 목사님을 만나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마카로니soup Feeding

--함께하는 Feeding--

Forth week



넷째 주의 Feeding음식은 마카로니soup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DayCare Center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중간격려 이후, 수혜자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보았고, 우리 팀이 떠난 뒤에도 YMCA와 DayCare Center가 함께 Feeding을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경제적인 도움이 아닌 활동적인 부분에서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음식을 만들고 배분하는 것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양치뿐만 아니라 식전 손씻기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간식시간 전, 후로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번 Feeding부터 아이들에게 손씻기를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San Fernando Dance Competition

Forth week

--새롭게 가까워 지는 법--



11월 28일은 DayCare Center 아이들이 San Fernando 시의 Dance Competition에 참가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아이들은 한 달간 방과 후에 열심히 춤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팀원들도 아이들의 춤연습을 보아왔고,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 날의 행사참여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학부모님들과도 인사할 수 있었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응원하고, Lupi가 아닌 지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서 가능한 친밀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Lupi Fiesta 준비

--SAYA ONE?,SAYAWAN!--

Forth week



12월 둘째 주는 Lupi마을의 Barangay Fiesta가 있는 주입니다. 우리 팀과 코디네이터들은 12월 8일에 우리가 기획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사는 'SAYA ONE?,SAYAWAN!'이라는 이름의 Dance Competition이었습니다. SAYA는 행복이라는 뜻의 필리핀 단어이고 SAYAWAN은 춤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진행을 위해 Barangay Captain에게 승인을 받고 각 Zone의 게시판에 행사홍보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각 팀원마다 행사에서의 역할을 배분 받았습니다.

과연,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지..... 다음 달에 확인하시죠!

Closing



11월을 한 단어로...

Angel(남은진) - 11월은 소중한



전기의 소중한, 가족의 소중한, 친구의 소중한,
팀원들의 소중함을 알게 된 한 달이었다.

Chloe(류가형) - 11월은 다가가기



이번 11월에 우리는 루피 각 zone을 투어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한 발작 더 다가갔다. 산페르난도에서 열린
Kids' dance competition이 계기가 되어 데이케어센터
아이들과도 서로 더 친밀해질 수 있었던 달이기도 했다. 또,
중간격려가 끝난 후 팀원들끼리 함께 영화를 보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11월은 서로에게 다가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11월을 한 단어로...

Sam(손민우) - 11월은 이것저것



End Poverty와 Atti project 계획서작성으로 바빴던 10월과 달리 11월은 할 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쉬는 시간이 많았던만큼 데이케어센터 활동준비, 루피 돌아다니기, 피딩프로그램 등 할 일도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팀답게 할 일에 있어서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Liza(권수아) - 11월은 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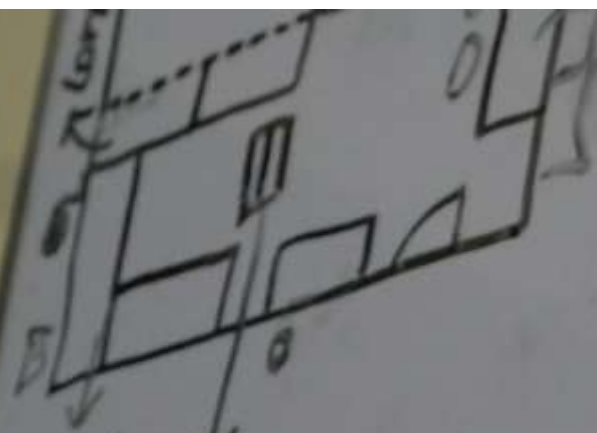
11월 초에는 소통과 기다림의 문제로 할 일이 너무 없었다! 프로젝트를 하려고 계획했던 일정이 다 미뤄져서 너무 심심했는데, 이게 폭풍 전의 고요였을까? 루피에 가기 직전, 메일을 확인하고 급하게 중간평가준비를 해야했다. 중간평가 이후, 데이케어센터에서의 수업을 준비하느라 머리에 불나게 회의하고, 준비하고... 일이 없다가 몰아치는 폭풍같은 한 달이었다.

11월을 한 단어로...

Patrick(김민수) - 11월은 3인 4각



전체적으로는 라온아띠, 한국 Y연맹, 필리핀 연맹, 나가에서는 라온아띠와 필리핀 연맹, 캄수르 Y, 데이케어센터에서는 라온아띠와 선생님과 아이들, 루피에서는 라온아띠와 캄수르 Y, 루피 사람들이 함께 걸어갔다. 3인 사각은 누구 하나가 앞으로 먼저 나가거나, 뒤처져서는 제대로 걷지 못한다. 호흡을 맞추어 다 같이 함께 걸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11월에는 우리 모두 함께 걸었다.



7:30 ~ 같이  동서강강강 $\left[\frac{2}{2} / 5 \right]$

The End.